EDITORIAL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20;59(2):87-87
Print ISSN 1015-4817
Online ISSN 2289-0963
www.jknpa.org

최신 지견을 통해 보는 직업 관련 정신건강 문제와 임상현장에서의 대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은평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승엽

Updates in Management of Occupational Mental Health Problems in the Clinical Practice

Seung-Yup Lee, MD

Department of Psychiatry, Eunpyeong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한국은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였으나 제조업 육성을 통한 산업화가 근대화와 함께 단기간에 이루어졌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변화를 보였던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산업구조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불리며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기술들이 산업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을 기계적이고 단순·반복적인 노동에서 점점 해방시키고 위험 작업을 자동화하기들이 수행하게 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미래 우리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기술 발전은 효율성의 극대화로 인간을 더욱 소모품적인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양극화가 한층 더 심화되어 사회 구성원들에게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산업보건에서 다루는 작업 관련 신체 질병이나 손상 대신 직무 스트레스, 감정노동 등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우울, 불면, 자살 등의 정신건강 문제의 비중을 점차 증가시키고 있다. 분업화 및 정보화로 업무 처리의 효율성은 극대화될 수 있겠으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인간화로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들을 더욱 취약한 산업환경에 놓이게 할 수 있다.

산업보건의 전통적 관심사는 과중한 노동이나 위험한 작업으로 인한 신체 손상 발생의 예방으로, 유독물질 유출이나 작업 중 추락 등의 작업환경적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작업장 안전장비를 제도화하여 작업자의 신체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미래의 중심 영역은 점점 직무로 초래되는 정신건강 문제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의 정책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

다. 정신질환의 산업재해 인정, 감정노동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이 이러한 정책 의도를 설명하며, 최근 기획재정부의 5대 국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국민정신건강증진’의 한 축은 근로자의 정신건강 증진이였다.

정신건강의학에서도 질병이 이미 발생한 후 내원한 환자의 치료에만 국한하지 말고 산업보건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의 저해요인을 찾아 관리해야 할 것이다. 정신장애 발생 자체를 예방하여, 이로 초래되는 생산성 감소를 막을 수 있다면 더 큰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 정신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이번 특집호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하였다.

첫째, 직무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우울증 및 정신건강 문제의 관리와 증진 방안을 소개하였다. 둘째, 감정노동의 개념과 평가 그리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의 중재 방안을 살펴보았다. 셋째, 소진증후군의 개념과 기여 요인 그리고 우울증과의 감별점을 설명하며 대처전략을 논의하였다. 넷째, 최근 많은 일련의 변화로 일선 현장 종사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건강 관련 산업안전보건법(감정노동, 직장내 괴롭힘, 산재)의 변화를 소개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설명하여 관련 법규의 임상적 활용도를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간행위원회에서 준비한 이번 특집 원고가 대한신경정신의학학회 회원 및 전공의분들이 임상현장에서 직무 관련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환자들의 진료 및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